다산포럼

‘얼빠진’ 나라의 ‘얼빠진’ 대학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요즘 한국 몇 대학들이 외국 기관이 평가하는 대학 서열에 올라가고, 학생들도 과거에 비해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들도 외국 학술지에 논문도 많이 내고 하니까 이제 한국대학도 세계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강의 충실도, 장학금, 기숙사 시설 등 교육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분명히 좋아진 점은 사실이다.

그런데 수치가 보여주는 변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거의 전공, 학술서적을 보지 않고, 오직 취직 준비에 목매달고 있다. 교수들의 논문 편수는 많아졌지만, 주로 미국의 민간기관이 만든 SCI, SSCI 급 잡지에 실리기 위한 논문, 즉 교육과 연관된 연구나 사회가 요구하는 기초과학, 이론연구와는 별 관계없는 ‘살아남기 위한’ 논문쓰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부가 유도하는 영어 강의 비율 맞추기 위해 인문학까지 영어로 강의해야 하고, 학생과 교수들이 안 되는 영어로 강의실에서 의사소통하는 희극이 연출된다. 교육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대학에 떠 넘겨 중위권 이하의 대학은 ‘의자 놀이’, 즉 교육보다는 학생 취업률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교수 연구자 생산 기능을 상실한 국내 대학원은 일부 한국학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다. 요즘은 영어로 강의할 수 있어야 교수가 될 수 있으니, 국내 대학원에서 공부해서 장차 학계의 주역이 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수년 전 중앙대학교를 인수하여 전교생에게 ‘회계학’을 필수로 하고, ‘취업 안 되는’ 학과를 폐지하는 등 대학을 기업식으로 운영하는 전범을 보인 박용성 회장은 “대학이 학문하는 곳이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이니,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그가 말했듯이 대학이 더 이상 상아탑은 아닌 것도 사실이고, 대학교육이 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현장교육 중심으로 가야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 이공계는 특히 그렇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보수적인 독일 대학도 점차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 특히 대학을 공공영역이 아닌 ‘교육 상품’의 공급처로 보는 사립대학 중심의 미국에서도 대학을 기업의 사내 직업훈련소처럼 운영하는 종합대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게다가 세계 100위나 300위 안에 들어가는 데 성공한 한국의 ‘일류’ 대학은 세계의 다른 대학과 달리 여전히 연구 기능이나 학자, 전문가 생산 기능이 매우 약한, 사실상 ‘학부중심 대학’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일류’ 대학은 언제나 입학생 수능성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교육과 연구의 질을 통해 인정받은 적이 없다.

교수진, 교재, 강의를 위한 이론이나 개념은 미국에서 수입하고, ‘간판’이 필요해서 온 학부생들에게 번역된 지식을 전달하는 점에서 우리 대학은 개발 독재시절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박용성 회장의 대학운영 노선은 ‘주변부 신자유주의 국가’의 ‘주변부 대학’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고 솔직하게 드러내 주고 있는 셈이다. 조선인들은 ‘전문대학’에서 기술적 지식만 학습하라는 일제의 고등교육제도나 교육관은 오늘 한국의 교육부나 대학을 인수한 기업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요구되고 있을 따름이다.

좀 과장하면, 한국어는 학문 언어가 되지 못하고, 국가나 사회의 장기 비전은 연구나 교육의 소재가 되지 못하고, 교수는 공부 자체가 좋아서 찾아온 학부생이나 자기 학문을 이어갈 대학원생 제자를 찾기 어렵다.

교육부는 오래 전 도저히 대학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퇴출되었던 구(舊) 비리재단을 복귀시켜, 몇 대학은 분규로 지새고 있다. 오늘 ‘주인이 확실한’ 여러 일류 대학들의 건물은 점점 화려해졌고, 대학 평가에서 서열도 올라가고 있다.

이들 ‘엄한 주인’ 밑에서 논문 숫자를 올려야 하는 교수나, 생존의 벼랑에서 곡예를 하는 시간강사들이나,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부의 스펙과 미국 유명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받아와야 하는 학생들이나, 모두가 ‘얼빠진’ 나라, ‘얼빠진’ 대학의 노예 군상일 따름이다.

이런 대학 현실을 두고서, 수치만 보고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좋아할 수 있을까?

기고

말의 씨앗은 어떻게 뿌려야 하는가?

김해숙
광주 숭의중 교장

해마다 새 학기가 되면 새내기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뿌리는 말의 씨앗은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은 가능한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

몇 년 전 교무실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교단에 뿌리는 말의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 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선생님, 말이 씨가 되었어요”라고 첫 마디를 건네며 오늘 학위논문이 통과되어 선생님을 찾게 되었다고 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키도 크고 장난기가 많았는데, 그 아이에게 “너, 왜 그렇게 장난이 심하냐?”라기 보다는 “장차 박사가 될 아이가 그러면 되겠느냐?”고 타일렀던 기억이 난다. 서 박사라고 불렸던 그 아이는 어느덧 40대 후반의 한의학 박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선생님이 늘 불러 주었던 ‘박사’라는 호칭 때문에 마음의 빚을 갖고 살다가 더 늦기 전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주는 말과 함께 보내온 박사학위논문 후기에는 중1때 까까머리 중학생을 만날 때마다 팔을 붙잡고 서 박사라 부르시며 말로 씨를 뿌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나는 그 시절 까까머리의 중학생 모습을 떠올리며 그와 기쁨을 나누었다.

‘코이’라는 물고기는 좁은 어항에 넣고 키우면 5~8cm정도,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고 키우면 20cm정도 자라지만 강에 방류하면 1m 넘는 큰 물고기로 자라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들 앞에 놓여진 아이들의 꿈의 크기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던지는 말 한 마디는 그들에게 긍정의 힘을 갖게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가 되어 그들 마음속에 치유되기 어려운 모습으로 각인됨으로써 청소년기의 소중한 기억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아픔으로 남기도 한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환경에 따라서 작게, 때로는 크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이 던지는 말 한 마디는 청소년기의 마음밭을 황무지로도, 윤택한 옥토로도 변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식해야 한다.

교단에 서기가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선생님들이 던진 따뜻한 말 한 마디, 격려와 지지는 그들이 힘들고 지친 세상을 살아갈 때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입가에 번지는 미소에 용기를 얻어 그들만의 영역을 펼쳐가면서 사회에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리라 생각한다.

오늘도 교단에서 묵묵히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시켜가면서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는 선생님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선생님들이 던진 따뜻한 말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에게 행복의 씨앗이 되어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데일카네기는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디의 격려’라고 말한다. 교단에서 던지는 격려의 말 한 마디로 아이들의 꿈지기가 되어보자.

기고

클래식으로 말걸기

조현영
피아니스트

클래식. 지루하고, 고차원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음악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입견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생활 전반에 클래식만큼 많이 흐르는 음악도 없을 것이다.

유럽이 클래식의 원조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공부를 해 본 나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고속버스안에서도, 휴대폰에서도, 하물며 청소차에서도 클래식이 흐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도처에서 클래식이 흐르고 있건만 정작 우리에겐 낯설고 어려운 음악으로만 여겨진다. 모든 사람이 한국말을 쓰는데 나 혼자만 남들이 이해 못하는 외국어를 쓰는듯한 낯선 느낌은 누구의 탓이며 왜 그럴까?

유럽 유학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클래식의 진가를 쉽게 전달하며 생활화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10년 전 귀국 직후 음악에 대한 열정이 한창이었을 때 문화예술계의 지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광주에서도 클래식 강좌나 피아노 토크 콘서트를 해보고 싶다고 말을 했다. 그러나 그 분의 눈빛엔 “아, 열정은 좋은데 현실은 참 만만치 않아. 가능할까?”하는 안타까운 느낌이 가득했다. 실제로 귀국 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매년 많은 연주를 하며 클래식을 함께 느끼고 싶어 애를 썼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았다.

클래식 연주는 하루가 멀다하고 펼쳐졌지만 정작 관객은 적었고, 더군다나 진정 음악이 듣고 싶어 내돈을 주고 표를 사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는 이렇게 소통이 안되고 단절된 문화를 어떻게하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우리는 게임을 할때도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만 즐길 수 있다. 클래식 또한 약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음악이며, 지식이라기보다는 게임의 규칙을 좀 알아야 한다. 전혀 모르고 즐기기엔 그 어떤 예술분야보다도 훨씬 추상적인 예술이 바로 클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일상과 연관지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안내를 해준다면 클래식을 훨씬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전달하려는 내용이 잘 표현되어 상대가 이해를 했을 때 소통이 원활히 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전에도 ‘렉쳐 콘서트’나 ‘해설이 있는 음악회’ 등의 타이틀로 진행된 형태는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이 또한 나만의 언어였지 않나싶다.

쉬운 언어로, 지식에 기반을 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클래식 이야기를 하고 싶던 나는 요즘 ‘피아노 토크’라는 강의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 처음 피아노 토크를 진행할 때는 나도 낯설고 당연히 듣는 이도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 피아노 토크는 사람들에게 다가서게 됐고, 사람들의 호응도 높아졌다. ‘하루키 소설속에 나오는 클래식’ 등 다양한 테마가 함께였다. 피아노 토크는 음악을 중심으로 문학, 영화, 미술, 역사, 정치 등 여러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 음악을 매개로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의 작품은 단순히 그 작품만의 의미가 아니다. 그 안엔 신과의 사랑, 가족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등 갖가지 사랑의 모습이 담겨있고 바흐가 숨쉬고 모차르트가 뛰어 놀던, 그리고 베토벤이 산책을 했던 유럽이 있으며 그들의 인생과 시대역사적 흔적이 녹아 있다. 바흐의 음악을 들으며 바흐라는 사람이 궁금해졌고, 그가 생의 마지막을 보냈던 라이프찌히가 그토록 가보고 싶었으며, 그래서 내 젊은 20대의 전부를 그곳에서 바흐를 느끼며 보냈다. 이 모든 것은 클래식이 내게 걸었던 마법이었다.

“피아노 토크를 들으며 클래식을 쉽게 이해했고, 또, 음악이 삶 속에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는 사람들을 보며, 클래식 음악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피아노를 연주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새삼 깨닫는다.

나는 클래식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인생을 배운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베토벤의 ‘봄’ 소나타가 듣고 싶고 멘델스존의 ‘봄노래’가 듣고 싶다. 봄바람 살랑거리는 오늘 봄처녀 설렘을 느끼며 내 옆의 사람에게 슬며시 클래식으로 말을 걸어본다. “저와 함께 ‘봄노래’ 들어 보지 않으실래요?”

농촌 부모님 편안한 노후 위해 농지연금 필요하다

필자 부모님은 해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두 분을 위해 농지연금에 가입해 놓은 상태다. 누구든지 자식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부모님 스스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여생을 마치기길 바란다. 그것은 노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들께서도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며느리와 살기 보다는 경제적, 육체적 건강만 허락된다면 독립적으로 농촌에 그대로 사시는 게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촌 부모님들은 도시의 자식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사는 것 자체가 더욱 힘든 일이다. 그저 수십년간 같이 살았던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고향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특히 연세가 60대, 70대가 넘는 농촌출신 어르신이 도시에 와서 깍쟁이 같은 사람들을 새로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아파트는 그야말로 교도소가 돼버리며 노인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농촌의 부모님들은 농촌에서 수십년간 같이 지냈던 마을 어른들과 함께 부대끼며 여생을 보내는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 하나의 방법이 바로 농지연금 아닐까 한다.

자식 입장에서 볼 때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물려받는 것보다 부모님이 농지를 이용해 연금처럼 쓰면서 여생을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다. 지금도 농촌의 부모님들은 “재산(농지)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농지연금에 가입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살아갈까”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걸로 안다. 이제는 농촌의 노부모님들께 자식들이 농지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해 부모님께 여유 있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의식이 확산되고 농지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노후에 고통 받는 부모님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정진혁·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社說

아동 학대 ‘집안일’ 아닌 공동체 책임이다

경북 칠곡과 울산의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면서 아동 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도 매년 상담 신고만 100여 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친부모라고 한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동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광주지역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823건의 상담 신고 건수 중 아동 학대 사례는 352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친부나 친모에 의한 학대가 80.8%(28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종사자 5.1%(18건), 조부모 2.6%(9건), 계모와 부모 동거인 각 2.3%(각 8건), 친인척 1.7%(6건) 등의 순이었다.

결국 대부분의 가해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특히 부모가 아이들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인격권을 무시하면서 일어나는 학대가 많다는 얘기다. 전국적으로 보면 매년 10명 정도의 아동이 가혹한 학대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12년부터 교사나 아동복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의무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단 한 건밖에 없는 상황이 이를 말해 준다. 이대로라면 신고의무자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 금액을 올리는 특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동 학대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범죄다. 아이들을 학대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지역사회의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전담수사팀 운영은 물론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부작용 우려 큰 ‘시간제 교사제’ 철회해야

교육부의 시간선택 교사제 도입을 놓고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는가 하면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들과 교원단체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제도 자체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교육력 약화는 물론 학생 학습권이나 인성지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양적 성과에만 집착해 시간제 교사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력이 떨어지고 저임금 근로자 양산 등으로 학교 교육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도 “시간제 교사는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계약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교직사회 적용은 매우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광주교대·전주교대 등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동맹휴업을 벌였다.

교육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은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계는 현직 교사 중 희망자가 그 대상이지만, 이 제도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서 나온 만큼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이 뻔하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하는 일이자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진학상담·학부모상담 등 직무를 맡은 교직의 업무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사기 저하도 심각한 문제지만 수업과 생활지도의 연속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실업난 극복을 위해 시간제 교사를 도입했지만 현재 그 부작용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의 성장이 바로 학교 교육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직시, 현실과 동떨어진 시간선택 교사제를 서둘러 철회해야 한다.

無等鼓

별이 된 소년

“야~오늘 날씨 죽이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가득했는데 오늘 아침이 되니 없어지고 날씨가 맑네요. 오늘 관측이 아주 잘 될 것 같네요. 좋은 사진들 기대해 봅니다.”

이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19살 소년은 별을 좋아했다. 카페 닉네임조차 ‘나는 샤를 메시에이다’로 정할 정도였다. 메시에(1730~1817)는 혜성과 혼동할 수 있는 성운·성단을 정리해 목록을 만든 프랑스 천문학자이다. 요즘 아마추어 천문가들은 게 성운(M 1), 안드로메다 은하(M 31), 오리온 성운(M 42)과 같이 그의 이름을 붙인 ‘메시에 목록’을 천체망원경으로 즐겨 관측한다.

하지만 소년은 폐기능이 17%밖에 안되는 호흡기 1급 장애인인데다 선천적 면역 결핍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면역력이 없어서 금세 병에 감염되곤 해 학업도 중단해야 했다.

‘숨 쉬는 것’과 ‘걷는 것’이 힘겨워 매일같이 집에만 있어야 했던 소년의 유일한 즐거움은 컴퓨터를 통해 천문관련 카페 ‘별하늘지기’에 올라오는 동호인들의 사진과 관측기를 읽는 것이었다. 부러움이 가득 담긴 댓글도 적극적으로 달았다.

소년은 망원경도 갖고 싶었지만 그에겐 이마저도 힘들었다. 그는 ‘슬픈 운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도 사회에 나가서 남들과 똑같이 바쁘게 일해보고 싶네요”라고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며칠 전 소년이 하늘의 ‘별’이 됐다. 별 지시기(레이저 포인터)를 자작하는 의욕적인 글을 올린 지 채 며칠 지나지 않은 때라 갑작스런 그의 운명 소식에 동호회 회원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했다.

회원들은 십시일반 조의금을 모았고, 그가 간절하게 보고자 했던 오리온 성운 사진이나 스케치를 영전에 헌정했다. 장애가 다소 있는 10대 소년 정도로 생각했던 많은 회원들은 그가 카페에 남긴 글과 댓글을 다시 찾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예전엔 무심히 지나쳤던 댓글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의 별에 대한 열망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에서는 장애없이 맘껏 별을 보기를 … 별 소년 ‘샤를 메시에’의 명복을 빈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